바르테니에프 펀터멘탈을 활용한 윌리엄 포사이드의 움직임 패턴 연구

A Study on Movement Pattern of William Forsythe Dance through Bartenieff Fundamental

김 지 영, 조 성 희 강원대학교 Kim-Ji-Young, Cho Sunghee Kangwon National Univ.

요약

본 연구는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의 『One Flat Thing Reproduced』를 바르테니에프 편더멘탈(Bartenieff Fundamentals)을 통해 그의 무용수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윌리엄 포사이드의 대표적인 안무적 특징인 역동성, 강인함과 공간적 조화로움(1)을 가능하게 하는 그의 무용수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움직임 패턴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결과 윌리엄 포사이드는 호흡을 안무의 요소로 사용하였고, 상·하체분리패턴은 포사이드 움직임의 특징적인 요소로 관찰되었으며, 서포트(Support)가 있는 듀엣(Duet) 움직임에서는 신체반쪽연결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동성, 강인함과 공간적 조화로움이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더 많은 사례를 통해 움직임 패턴을 연구한다면 에너지 표현에 직접 적용 가능한 패턴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안무를 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 서론

본 연구 목적은 윌리엄 포사이드(William Forsythe)의 대표적인 안무적 특징인 역동성, 강인함과 공간적 조화로움을 가능하게 하는 그의 무용수들이 가지는 특징적인움직임 패턴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탈(Bartenieff Fundamentals)의발달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One Flat Thing Reproduced』를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작품개요

표 1. 『One Flat Thing Reproduced』작품 매요[3]

안무	윌리엄 포사이드
제작 감독	윌리엄 포사이드, 마리아 팔라찌(Maria Palazzi), 노라 주니가 샤우(Norah Zuniga Shaw)
음악	톰 윌렘스(Thom Willems)
작품 시간	15분 30초
초연	2005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윌리엄 포사이드의 『One Flat Thing Reproduced』[2]이다. 이 작품에서 포사이드는 책 상들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움직임의 변주와 리듬을 보여주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분 45초부터 4분 8초까지의 부분을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무용수들 간의 컨텍 (contact)과 호흡이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 분석 대상의 선정은 4명의 현대무용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되었다.

2.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탈의 발달과정 패턴[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품 분석 대상은 작품의 나타난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바르테니에 프 펀더멘탈의 발달과정 패턴을 분석틀로 하였다.

발달모형	특징
호흡	호흡을 통해 생명 유지 움직임이 이루어짐
중심-말초부 연결/중앙반사	방사형, 중심 방사형 해파리, 문어, 불가사리
머리-꼬리뼈 연결/척추의 움직임	척추 뱀, 물고기, 파충류, 어류, 조류
상체-하체 연결/상응하는 움직임	상·하체 분리 개구리, 캥거루, 거북이, 수영
신체의 반쪽 연결 / 동종 판촉 연결	오른쪽-왼쪽 도마뱀
교차 측면 연결 / 대측연결	좌·우뇌 통합 인간, 말, 강아지 걸을 때

Ⅲ. 결과

작품분석 결과 『One Flat Thing Reproduced』에서는 호흡, 상체-하체 연결과 신체의 반쪽 연결이 관찰 되었다. 먼저 호흡은 4분 5초에서 3명의 무용수들이 책상으로부터 신체를 공중으로 띄우는 과정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이 안무의 요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상 - 하체 분리 패턴은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움직임 패턴으로 포사이드 무용을 대표하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다. 4분 4초에서는 여자 무용수가 남자 무용수의 지지를 받아 암 써클(arm circle)을 수행 한 인사이드 킥 (inside kick)으로 상응하는 움직임을 수행하는 상-하체 분리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의 반쪽 연결은 컨텍(contact)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4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여자 무용수가 남자무용수에게 들려 책상에 다리를 올리며 암 써클과 에티튜드(attitude)가 반쪽으로만 상응되게 관찰 되었다.

Ⅳ 결과

본 연구는 윌리엄 포사이드의 『One Flat Thing Reproduced』를 바르테니에프 펀더멘탈의 분석틀을 통해 그의 무용수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윌리엄 포사이드는 호흡을 안무의 요소로 사용하였고, 상-하체분리패턴은 포사이드 움직임의 특징적인 요소로 관찰되었으며, 지지가 있는 듀엣 움직임에서는 신체반쪽연결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흡, 상-하체분리패턴, 신체 반쪽연결패턴과 같이 인간의 통합적인 움직임에 도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움직임 패턴과 역동성, 강인함과 공간적 조화로움이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더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움직임 패턴을 연구한다면 에너지 표현에 직접 적용가능한 패턴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안무를 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 고 문 헌 ■

- [1] KISSELGOFF, A., "DANCE REVIEW; Loud Tables, but Not a Restaurant", The New York Times, (from: http://www.nytimes.com/2003/10/02/arts/dance-revi ew-loud-tables-but-not-a-restaurant.html), OCT. 2, 2003.
- [2] One Flat Thing Reproduced (from:https://www.youtube.com/watch?v=cufauMezz_Q)
- [3] 윌리엄 포사이드 웹페이지 www.williamforsythe.com/
- [4] 김경희, 바티니에프 기본원리, pp.31-45, 눈빛, 서울, 2006.